

세계태권도연맹과 국제태권도연맹의 융합을 위한 태권도전공 교수 및 대학생들의 인식

정병기(계명대학교 교수)*

국문초록

이 연구는 태권도 전공 교수들과 대학생들의 세계태권도연맹(WT)과 국제태권도연맹(ITF)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세계태권도연맹의 관련 활동에 대한 국내 태권도인들의 합리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데이터로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를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WT와 ITF의 역사에 대해 대학의 태권도 교수들은 대다수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대학생들은 일부만 잘 아는 것으로 나타났고, WT와 ITF간 융합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교수 2/3이상, 대학생은 44%가 긍정적으로 답하고 있었다. 둘째, WT와 ITF와의 융합을 위해 우선시 되어야 하는 종목에 대한 조사결과 교수들은 과반수가 품새가 우선이라 응답하였고 대학생들은 겨루기와 품새가 비슷한 응답을 보였다. 셋째, 겨루기를 한다면 ITF가 WT의 경기규칙을 적용해야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교수 및 대학생 모두 긍정의견이 조금 높았으며 품새 종목을 한다면 새로운 경기 품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학 지도자들의 절반정도 긍정적 답변을, 대학생들은 1/3정도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넷째, 교수들은 융합에 대한 긍정적 이유로 하나의 무술로 가야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정적인 이유는 수련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 향후 WT는 국제포럼 개최 등을 통해 WT와 ITF간의 역사적 사실과 배경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능동적 정책과 함께 겨루기와 품새 중 어떠한 종목부터 ITF가 참여가 가능한지에 대한 양 단체의 전문가 그룹을 통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품새 종목에서는 WT와 ITF간 공유가 가능한 새로운 경기 품새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제안을 한다.

주제어 : 세계태권도연맹, 국제태권도연맹, 태권도지도자, 태권도전공생, 융합

* tigersid@naver.com

I. 서론

1948년 8월 15일 남측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1948년 9월 9일 북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남과 북이 헤어진지 만 74년이 되었다. 태권도 역시, 1972년에 최홍희 ITF(국제태권도연맹: International Taekwondo Federation) 총재가 캐나다로 본부를 이전하고 1973년 김운용 총재가 WTF(세계태권도연맹: World Taekwondo Federation, 현재 WT로 개칭)를 세우면서 태권도가 두개의 태권도로 나누어 진지 올해로 50년이 되었다(Dziwenk, R. & Johnson, J. A., 2015). 이에, 태권도는 ITF가 현재의 WT 보다 사실상 먼저 시작되었다라는 점에서는 어느 태권도인들도 부정하지 않는다. 또한, “태권도”라는 명제만을 가지고는 당시 ITF를 창설했던 최홍희 총재의 노력과 역할도 그리고 이후 WT를 창설하여 IOC(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라는 국제스포츠 제도권내에 진입 발전시킨 김운용 총재의 노력과 희생에 대해서도 부정하는 태권도인들이 없다(양진방, 2013; 이용주, 최공집, 전민우, 2016).

하지만 현재의 태권도인들은 이렇게 나눌 수 밖에 없는 이유의 여부를 떠나 다시 통합을 해야 한다는 기로에 서 있다. 그러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적 방법을 도출하고자 하는데 그 첫발은 과거를 먼저 마주 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과거를 마주 대하는 것도 1세대 원로 태권도인들이 운명을 달리하고 있는 지금, 생존해 계시는 원로 태권도인들 한두분과 사실상 그분들을 모셨던 직계 제자 한두분 정도 인터뷰 및 연구자들의 논문과 각종 저서들을 토대로 퍼즐을 맞추듯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했다(조은형, 2016).

김운용 총재시절 당시 WTF나 ITF 양측 모두 통합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일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나오고 있다. 특히, 당시 국기원 부위원장이었던 이종우는 ITF를 사조직으로 폄하하고 사조직과 타협을 해서야 되겠느냐라며 반대 입

장을 분명히 취했던 것으로 나오고 있다(오정수,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기원은 1982년과 1984년 1차 및 2차 통합 시도를 하였으나 모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강희창, 2014). ITF측에서도 WTF에 흡수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WTF 연맹체 내 ITF관계자들의 지위에 대한 지분을 요청하고 있다. 더불어, ITF에서 개발한 태권도의 기술적, 형태적, 규칙적 상황을 인정하고 선통합 후교섭의 안을 제시하는 등 WTF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들이 오고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단체의 총재들은 분명히 “하나의 태권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대가 형성 되었던 것으로 여러 기록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김정균, 2014). 현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재임 중 ITF와의 관계는 “통합”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표면적으로 표출시켜 진행하기 보다는 “조용한 연애”에 더 가까운 특징을 보이고 있다. 즉, 재임초기 조정원 총재의 주 역점 사업은 겨루기 판정반복 및 시비, 심판들의 부정, 친 한국위주 경기라는 IOC의 따가운 시선과 올림픽 정식종목으로의 입성을 하고자 하는 타 스포츠 및 무도종목들로부터 들어오는 도전과 태권도 흔들기로부터 이를 방어하고 보호하는데 주력하게 된다.

사실상 초기에는 ITF와의 밀월 관계 등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력조차도 없었다 볼 수 있다(김철오, 2002). 현재 WT는 다소 문제점들이 제기 되고는 있으나 전자호구 도입으로 심판 판정에 대해서는 IOC가 요구하는 도덕적 기준을 채워 나아가며 올림픽잔류를 떠나 태권도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자리 굳히기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며 IOC 2020 Agenda에 따라 현재는 친 미디어 스포츠 태권도로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들을 진행하고 있다(김지혁, 2006). 그에 따라, 向 IOC에 대한 안정성을 어느 정도 확보한 WT는 “스포츠제전을 통한 세계의 평화 추구”라는 올림픽리즘 실현의 책임을 갖고 있는 토마스 바흐 IOC위원장의 역할과 관심에도 일관성을 가질 수 있는 태권도를 자연스럽게 부각시켜 동계올림픽이기는 하나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평화의 올림픽”을 실현하는 상징적인 역할에 여자 아이스하키팀과 더불어 이벤트 요소로 북한측 태권도시

범단 초청을 통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기 시작한다(박찬우, 2015; 이승진, 전정우, 1017). 이는 재선을 앞두고 있는 토마스 바흐 IOC위원장에게도 21C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의 상징인 한반도와 태권도를 동일시하게 되는 계기가 되며 IOC의 올림픽에 대한 긍정적 순기능의 툴(Tool)로 사용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2018년도를 중심으로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조정원 총재는 당시 북한 ITF총재인 장용 IOC위원과 친밀감을 유지하며 그 결과로 2014년 8월21일 토마스바흐 IOC위원장 입회하에 중국 난징에서 양 조직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전략적 자세를 취한다. 이와 같은 정치적 수면 밑에서의 남북 태권도는 태권도 제도권 밖에 있는 민간 차원에서도 제3세계 국가에서 만나 태권도 시범과 기술에 대한 상호 정보를 교류하는 기회를 열어 주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안진영, 김두한, 안근아, 2011).

이후, WT는 2017년 6월 무주에서 23번째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에 북한 태권도시범단을 초청하게 되고 현장에 문재인 대통령 방문과 만남 그리고 사실상 북한에 대한 대통령의 메시지를 시작으로 핵문제로 인한 정치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으로 사면초가에 있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 변화와 더불어 스포츠로 남북간 대화의 틀을 제공하게 되었다. 그 결과로 이듬해 열리게 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을 참여 시키는 기회를 제공하며 북한은 응원단 및 현송월 단장을 중심으로 한 문화 예술단을 올림픽 기간 중 보내게 되고 한국은 그 답례로 2018년 3월말 가수 출신인 윤상을 단장으로 예능인들과 WT 소속 태권도시범단을 보내 합동 공연을 하게 되었다. 평창올림픽 기간 중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과 노동당 상무위원인 김영남을 내려 보내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하게 되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3월 5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하는 친서와 함께 대북 특사단을 파견했다(세계태권도연맹, 2014). 이는 스포츠가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서 순기능 역할의 대표적인 한 사례로 남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조정원 WT총재는 겨루기와 자유품새 부분에서 북한 ITF의 참여를 위해

현 ITF 리용선 총재에게 가장 빠른 통합 및 융합의 길은 북한에 WT협회를 창설하는 것임을 요청하게 되며 리용선 총재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신호를 보내왔다(안진영, 안근아, 2016; 안근아, 안진영, 2013). 하지만 국제경기연맹단체로서의 WT와 ITF간의 대화를 국기원이나 대한태권도협회에서는 그들이 배제된 채 진행되는 것을 그다지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며 WT산하 대륙연맹 소속 국가협회들도 일부 WT 조정원 총재의 행보에 긍정적이지는 않았다. 더불어 북한 ITF와 우리가 꼭 합쳐야 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 태권도인들도 상당히 많다. 따라서, WT 조정원 총재가 정책적으로 움직이더라도 최소한 한국 태권도인들의 의지를 모으는 일도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둘 이상의 조직이나 기구 따위를 하나로 합침(국립국어원, 2022)”을 통합이라고 표현하며 대부분 WT와 ITF가 함께 어우러지는 것을 ‘통합’이라고 칭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융합(convergence)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융합(convergence)이란 “다른 종류의 것이 녹아서 서로 구별이 없게 하나로 합하여지거나 그렇게 만듦. 또는 그런 일.(국립국어원, 2022)”을 말하는 것으로 WT와 ITF 간의 관계는 인위적인 통합보다는 서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갈 수 있는 ‘융합’으로 먼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봉(2003)은 융합이 “두 단체의 제도와 기술을 포용하여 새로운 것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으로 ‘남측’이 융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향후 세계태권도연맹과 국제태권도연맹이 상호 융합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내 태권도 전공 교수들과 전공 대학생들의 이에 대한 인식 실태를 파악하여 세계태권도연맹의 관련 활동에 대한 국내 태권도인들의 합리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데이터로서 활용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이 연구를 위한 태권도전공 교수 및 전공 대학생들의 인식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지법을 활용하였다. 설문지를 구성하기 위하여 태권도 전문가 7명, 문항 개발 전문가 3명의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였고 구성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지 구성시 세계태권도연맹과 국제태권도연맹의 상호 융합을 위한 과정으로 역사와 겨루기 및 품새 경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는 태권도의 세계화에 있어 경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으며,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종합 스포츠 대회에 있어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점이 이를 뒷받침해 주기 때문이다(장석왕, 안용규, 2013).

1차 작성된 설문지 문항에 대한 모호함과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 내용들을 수정 및 보완을 통해 두 집단에서 각 20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 이후 최종적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국내 태권도 관련학과의 교수 및 전공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는 14개 대학의 태권도 전공 교수 39명 및 16개 대학의 태권도 전공 대학생 1,190명이 참여하였으며 MS-Excel을 이용하여 정리하였고 IBM SPSS Ver. 21.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태권도 전공 교수의 인식 조사 결과

1) WT와 ITF의 역사적 상호관계에 대한 이해 및 융합의 필요성

WT와 ITF의 역사적 상호 관계에서는 대학지도자들의 인식 및 융합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역사적 상호관계에 대하여 66%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부정적 견해는 3.0%로 나타났으며 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WT와 ITF가 서로 융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응답 중 70%가 긍정적으로 답하고 있으며 17%가 부정적으로 답하고 있었다.

표 1. WT와 ITF의 관계 및 융합에 대한 인식

응답	역사적 상호관계에 대한 이해		WT와 ITF의 융합	
	N	%	N	%
매우 긍정	15	38.0	10	26.0
긍정	10	26.0	17	44.0
보통이다	11	28.0	5	13.0
부정	1	3.0	4	10.0
매우 부정	2	5.0	3	7.0
합계	39	100	39	100.0

2) WT와 ITF가 융합을 위한 겨루기 경기에 대한 인식

WT와 ITF가 융합을 위해서는 현재 겨루기 경기부터 상호 교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38%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26%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겨루기 경기 교류를 한다면 ITF가 WT 경기규칙에 따라 경기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39%가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었으며 23%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표 2. WT와 ITF의 교류에 대한 방법(겨루기)

응답	겨루기부터 교류		ITF측에서 WT 경기규칙 도입	
	N	%	N	%
매우 그렇다	6	15.0	7	18.0
그렇다	9	23.0	8	21.0
보통이다	14	36.0	15	38.0
그렇지 않다	7	18.0	6	15.0
매우 그렇지 않다	3	8.0	3	8.0
합계	39	100.0	39	100.0

3) WT와 ITF가 융합을 위한 품새 경기에 대한 인식

WT와 ITF가 융합을 위해서는 현재 품새 경기부터 상호 교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51%가 긍정적으로 답하고 있으며 13%가 부정적으로

답하고 있다. 또한 품새 경기 교류시 새로운 품새(경기용)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데 대한 빈도분석 결과 49%가 긍정적으로 답하고 있으며 18%가 부정적으로 답하고 있다.

표 3. WT와 ITF의 교류에 대한 방법(품새)

응답	품새부터 교류		새로운 경기용 품새가 필요	
	N	%	N	%
매우 그렇다	6	15.0	4	10.0
그렇다	14	36.0	15	39.0
보통이다	14	36.0	13	33.0
그렇지 않다	3	8.0	4	10.0
매우 그렇지 않다	2	5.0	3	8.0
합계	39	100.0	39	100.0

4) WT와 ITF 간 융합의 필요성

WT와 ITF 간 융합을 해야 하는 이유로는 하나의 무술로 가야하기 때문이라는 답이 41%로 가장 높았으며 무예태권도로서의 발전과 기술의 다양성 및 올림픽종목으로의 위상 강화가 각각 17%의 의견을 동일하게 보였다.

표 4. WT와 ITF 간 융합의 필요성

응답	N	%
하나의 무술	5	41.0
무예로서 태권도의 발전	2	17.0
기술의 다양화	2	17.0
올림픽 스포츠로서의 강점	2	17.0
기타	1	8.0
합계	12	100.0

5) WT와 ITF의 융합에 대한 부정적 의견

WT와 ITF의 융합에 대한 부정적 의견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상호 훈련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답이 44%로 가장 높았으며 그 외 정치적인 문제 때문이라는

답이 두번째로 높았다.

표 5. WT와 ITF의 융합의 어려움

응답	N	%
훈련방식의 차이	7	44.0
정치적 문제	4	25.0
조직의 특성	2	13.0
정체성 혼란	2	13.0
기타	1	6.0
합계	16	100.0

2. 대학생들의 인식 조사 결과

1) WT와 ITF의 역사적 상호 관계에 대한 이해 및 융합의 필요성

WT와 ITF의 역사에 대하여 상호 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다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26%가 긍정적으로 답하고 있으며 28%가 부정적으로 답하고 있다.

표 6. WT와 ITF의 관계 및 융합에 대한 인식

응답	역사적 상호관계		WT와 ITF의 융합	
	N	%	N	%
매우 긍정	92	8.0	117	10.0
긍정	215	18.0	409	34.0
보통이다	548	46.0	558	47.0
부정	238	20.0	84	7.0
매우 부정	97	8.0	22	2.0
합계	1190	100.0	1190	100.0

WT와 ITF가 서로 융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44%가 긍정적으로 답하고 있으며 9%가 부정적으로 답하고 있다.

2) WT와 ITF가 융합을 위한 겨루기 경기에 대한 인식

WT와 ITF가 융합 또는 융합을 위해서는 현재 겨루기 경기부터 상호 교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데 대한 빈도분석 결과 44%가 긍정적으로 답하고 있으며 7%가 부정적으로 답하고 있다.

겨루기 경기 교류를 한다면 ITF가 WT 경기규칙을 다시 배우고 WT의 경기규칙에 따라 경기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데 대한 빈도분석 결과 36%가 긍정적으로 답하고 있으며 15%가 부정적으로 답하고 있다.

표 7. WT와 ITF의 교류에 대한 방법(겨루기)

응답	겨루기부터 교류		ITF측에서 WT 경기규칙 도입	
	N	%	N	%
매우 그렇다	115	10.0	116	10.0
그렇다	407	34.0	311	26.0
보통이다	585	49.0	583	49.0
그렇지 않다	69	6.0	151	13.0
매우 그렇지 않다	13	1.0	29	2.0
합계	1190	100.0	1190	100.0

3) WT와 ITF가 융합을 위한 품새 경기에 대한 인식

WT와 ITF가 융합 또는 융합을 위해서는 현재 품새 경기부터 상호 교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데 대한 빈도분석 결과 42%가 긍정적으로 답하고 있으며 7%가 부정적으로 답하고 있다.

품새 융합시 새로운 품새(경기용)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데 대한 빈도분석 결과 36%가 긍정적으로 답하고 있으며 17%가 부정적으로 답하고 있다.

표 8. WT와 ITF의 교류에 대한 방법(품새)

응답	겨루기부터 교류		새로운 경기용 품새가 필요	
	N	%	N	%
매우 그렇다	128	11.0	129	11.0
그렇다	368	31.0	296	25.0
보통이다	613	52.0	562	47.0
그렇지 않다	63	5.0	150	13.0
매우 그렇지 않다	18	2.0	52	4.0
합계	1190	100.0	1190	100.0

IV. 논의

이 연구는 세계태권도연맹과 국제태권도연맹이 상호 융합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내 태권도 전공 교수들과 전공 대학생들의 이에 대한 인식 실태를 파악하여 세계태권도연맹의 관련 활동에 대한 국내 태권도인들의 합리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데이터로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를 진행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해보고자 한다.

첫째, WT와 ITF의 역사적 상호관계에 대한 이해 및 융합의 필요성에서 교수들은 과반수 이상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대학생의 경우 역사적 상호관계에 있어서 긍정의견과 부정의견이 비슷한 비율을 보였지만, WT와 ITF의 융합은 절반정도가 긍정적인 의견을 보여주고 있었다. 각 대학의 커리큘럼에서 조차 스포츠 역사 과목이 사라지고 있는 지금 태권도에서도 최소한의 태권도 현대사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우리 태권도가 북한측 ITF와 현 WT가 융합이 되어 하나의 태권도로 가야 한다는 의견은 태권도지도자들이 70%가 긍정적으로 답하고 있으며 대학생들은 44%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응답율을 긍정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에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둘째, WT와 ITF가 융합을 위한 겨루기 경기의 역할에 대하여 교수집단과 대학생집단 모두 겨루기부터 교류하는 것과 ITF측에서 WT의 경기규칙을 도입하는 것에 긍정적인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WT와 ITF가 융합을 위한 품새 경기의 역할에 대하여 교수집단과 대학생집단 모두 품새부터 교류하는 것과 ITF측에서 WT의 경기규칙을 도입하는 것에 긍정적인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장에 있는 많은 전문가들은 겨루기를 융합하기에는 ITF는 힘에 의지하는 무도로서의 태권도로 겨루기시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사실상 우리 스포츠화 되어 있는 WT의 경기 방식과는 너무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품새부터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WT와 ITF간 상호 문화적 공유가 가능한 공식 경기용 품새 개발은 필요하다 판단된다.

넷째, 교수집단에게 질문한 WT와 ITF 융합의 필요성에 대해 하나의 무술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WT와 ITF 융합에 대한 부정적 의견으로 상호 훈련방식이 다르다는 것과 정치적인 문제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WT와 ITF의 출발은 1966년 서울에서 최홍희의 주도로 국제태권도연맹(International Taekwondo Federation; ITF)가 설립되었으며, 1972년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와의 갈등으로 캐나다에 망명하면서 ITF 역시 이전하게 되었으며, 이후 1973년 국내에서 ITF가 아닌 태권도 국제기구의 필요성에 따라 세계태권도연맹(World Taekwondo Federation; WTF-> 이후 WT로 개칭)가 설립되었다(김태훈, 2021; 임신자, 석류, 2021). 이렇게 태권도의 두 기구가 분리된 지 50여년의 시간이 흘러오면서 서로 다른 형태로 발전해오게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1980년대 중반부터 WT와 ITF의 통합 및 교류에 대한 논의가 1980년대부터 이어져 왔지만 한동안 1990년대 후반까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였다. 그러나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이후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면서 ITF 측의 위기의식과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에 따라 남북한의 태권도는 체육교류의 새로운 대상으로 여겨지게 되었다(이 봉, 2003).

그러나 남북한의 태권도로 인식되는 WT와 ITF의 태권도는 정치상황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었고, 2000년대 초반 이루어지던 태권도 교류는 한동안 정체되어 있었다. 이후 2018년 평창올림픽과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통합의 가능성과 비전을 위해 두 시범단의 합동공연이 이루어졌지만, 오랜 시간 별도의 단체로 발전해오면서 멀어진 기술의 형태는 동시에 시범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태에서 단독으로 시범을 보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김남훈, 2021). 이러한 괴리감은 이 연구에서 통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부정적 인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과 관계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어느 한 단체에 귀속되는 형태의 인위적 통합이 아닌 서로 기술과 문화가 교류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융합의 형태로 WT와 ITF의 결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응답자들이 겨루기나 품세의 경기 형태에서의 교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WT식의 경기규칙을 도입하여 이루어진다고 응답한 것은 현재 세계태권도연맹 산하에 212개국 약 1억명의 수련생이 수련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수련국가와 수련인구가 ITF보다 상당수 많은 상황에서 어쩌면 당연할 수 밖에 없는 응답이라고 본다.

2028년 올림픽까지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지속하고, 남북한의 평화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 WT와 ITF의 융합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WT 측에서 ITF를 흡수해서 통합하는 형태를 고수한다거나 ITF측에서 동등한 통합의 형태만을 주장하는 등 각 단체의 이익만을 주장한다면 끝없는 평행성을 달릴 수 밖에 없다(이 봉, 2003). 1980년대에 논의가 시작되고 2000년대 초반 실질적으로 시작된 남북태권도교류 이후 교류와 단절이 반복되어 온 이 시점에서 세계태권도연맹과 국제태권도연맹의 융합에 대한 논의는 보다 넓은 관점에서 진행됨으로써 향후 ‘하나의 태권도’로 발전되어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줄 것이라 기대한다.

V. 결론

이 연구는 세계태권도연맹과 국제태권도연맹이 상호 융합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내 태권도 전공 교수들과 전공 대학생들의 이에 대한 인식 실태를 파악하여 세계태권도연맹의 관련 활동에 대한 국내 태권도인들의 합리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데이터로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를 진행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WT와 ITF의 역사적 상호관계에 대한 이해 및 융합의 필요성에서 교수들은 과반수 이상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대학생의 경우 역사적 상호관계에 있어서 긍정의견과 부정의견이 비슷한 비율을 보였지만, WT와 ITF의 융합은 절반정도가 긍정적인 의견을 보여주고 있었다.

둘째, WT와 ITF가 융합을 위한 겨루기 경기의 역할에 대하여 교수집단과 대학생집단 모두 겨루기부터 교류하는 것과 ITF측에서 WT의 경기규칙을 도입하는 것에 긍정적인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WT와 ITF가 융합을 위한 품새 경기의 역할에 대하여 교수집단과 대학생집단 모두 겨루기부터 교류하는 것과 ITF측에서 WT의 경기규칙을 도입하는 것에 긍정적인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교수집단에게 질문한 WT와 ITF 융합의 필요성에 대해 하나의 무술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WT와 ITF 융합에 대한 부정적 의견으로 상호 훈련방식이 다르다는 것과 정치적인 문제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결과에 비추어 WT의 ITF에 대한 융합과정의 정책과 실행은 반드시 태권도인들의 협의를 모아 정책의 기초를 세우고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그에 따라, 첫째, 한국 태권도 지도자들 및 전공학생들이 WT와 ITF의 역사적

배경과 태권도 탄생에 대한 현대사적 교육이 필요하다 판단되며 둘째, ITF의 경기 방식에 대한 이해와 교육이 필요하고 셋째, 왜 우리 태권도가 하나의 태권도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태권도 철학적, 역사학적, 산업적 측면에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희창(2014). **태권도 품새경기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탐색**.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 국립국어원(2022). **표준국어대사전**.
- 김정균(2014). **태권도 겨루기 경기용품의 발전과 경기규칙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대학원.
- 김지혁(2006). **태권도 품새대회의 발전방향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 김철오(2002). **태권도 품새·격파·호신술의 경기화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체육과학대학원.
- 김태훈(2021). 남·북 태권도 통합방안 연구 - 세계태권도연맹(WT)과 국제태권도연맹(ITF)을 중심으로 -. **북한학연구**, 17(1), 427-436.
- 박찬우(2015). **태권도 품새의 대중화를 위한 가치 탐색**.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대학원.
- 세계태권도연맹(2014). **세계태권도연맹 품새 경기규칙 및 해설**. from <http://www.worldtaekwondo.org/wp-content/uploads/2016/10/WTF-Poomsae-Competition-Rules-Interpretation-March-19-2014.pdf>
- 안근아, 안진영(2013). 태권도 품새경기의 체점 및 운영관리 개선방안. **한국스포츠학회지**, 11(4), 41-49.
- 안진영, 김두한, 안근아(2011). 태권도 품새경기규칙 개정에 따른 선수인식과 발전 방향. **한국스포츠학회지**, 9(4), 89-98.

- 안진영, 안근아(2016). 하계유니버시아드 태권도 품새경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스포츠학회지**, 14(1), 79-88.
- 양진방(2013). 품새수련에 대한 새로운 의미 탐색과 품새개념의 재정립 모색. **움직임의 철학 : 한국체육철학회지**, 21(3), 95-125.
- 오정수(2011). 태권도 품새선수들의 자기관리가 스트레스 및 대처방안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사회체육대학원.
- 이봉(2003). 남북태권도교류의 성과와 과제-2002년도 시범단 교류사업의 사례-.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8(1), 17-29.
- 이승진, 전정우(2017). 태권도 자유품새 도입에 따른 선수와 지도자의 품새대회 인식 및 발전방향 탐색. **국기원 태권도연구**, 8(4), 357-377.
- 이용주, 최공집, 전민우(2016). 태권도 품새 경기의 변천과정과 향후 과제. **한국스포츠학회지**, 14(4), 23-32.
- 임신자, 석류(2021). **태권도 개론**. 서울: 상아기획.
- 장석왕, 안용규(2013). 세계화를 위한 태권도 경기의 발전방향. **스포츠 사이언스**, 31(1), 91-98.
- 조은형(2016). 태권도 품새 동작의 난이도 분석을 위한 표준화 연구. **국기원 태권도연구**, 6(1), 115-156.
- Dziwenka, R. & Johnson, J. A. (2015). Philosophical perspectives of practice: Traditional martial arts Taekwondo vs. modern sports Taekwondo.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aekwondo Research*, 2(2): 1-8.

ABSTRACT

The perception of university Taekwondo professors and college students for the convergence of the World Taekwondo and the International Taekwondo Federation

Chung, Byung-Kee(Keimyung Univ.)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aim of identifying Taekwondo professors and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the World Taekwondo Federation (WT) and the International Taekwondo Federation (ITF) and using them as data to reach a reasonable agreement among domestic Taekwondo people on related activities. First, the majority of Taekwondo professors at universities were found to be familiar with the history of WT and ITF, but only some of them were found to be familiar with university students and more than 2/3 of professors and 44% of college students answered positively to the idea that it should be convergence between WT and ITF. Second, as a result of the survey on the stocks that should be prioritized for the convergence of WT and ITF, the majority of professors answered that Poomsae was the priority, and college students showed similar responses to competition. Third, both professors and college students had slightly higher positive opinions on the question that ITF should apply WT's rules for competition and about half of the university leaders who thought that a new game of Poomsae needed a positive answer, and about one-third of college students answered positively. In the future, WT will need to agree on which events ITF can participate in, competition or poomsae, along with active policies that can explain historical facts and backgrounds between WT and ITF through international forums.

Key words: ITF(International Taekwondo Federation), WT(World Taekwondo), Taekwondo major professor, Taekwondo major student, convergence

논문투고일 : 2022.09.30.
심사일 : 2022.11.08.
심사완료일 : 2022.11.19.